

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0. 8.(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
보도일자	2026년 10월 8일(목)부터		
담당부서	도시환경전문위원	담당자	박일용 전문위원(044-300-7471)
			박혜령 주무관(044-300-7472)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작

- 전동면 토석채취허가지·공동구 현장방문 시작으로 이번 달 15일까지 행감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8일 전동면 토석채취허가지와 공동구 관리사무소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이번달 15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시설 관리·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전동면 봉대리에 위치한 토석채취허가지를 방문해 대행 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공사 중지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현장 복구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 이후 사업자의 산림 복구 의무 미이행으로 시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해 대행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자의 진입로 차단과 인접한 불법 토석채취지역의 복구 미이행으로 공

사가 중지된 상태로, 위원들은 사업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와 이행계획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장기간 방치된 채석지로 인해 우기에 토사 유출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측의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미리 마련해, 복구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준공 기한이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만큼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용호동 공동구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시설 관리·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세종시 공동구는 대중교통중심도로(BRT)와 연결도로 하부에 조성된 총 연장 22.27km의 지하 시설로, 난방·전력·상수도·중수도·통신시설 등을 수용하고 있으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고 있다.

위원들은 공동구 내부를 둘러보며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공동구에 사고가 나면 시민 생활 전반에 큰 피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준공된 나성구간 등과 관련해서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을 세우고, 화재·침수 등 재난 대응 체계와 관리 인력 운영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확인된 현안을 행정사무감사에

서 면밀히 다뤄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도시주택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13일 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15일 차량등록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